



가장 성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이들,
성령께서 언제나 이들과 함께하십니다.

© ismael martinezsanchez / ACN

**“성령께서는 담대하게,
큰 소리로, 언제 어디서나,
또한 시류를 거슬러,
복음의 새로움을 선포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중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내적인 삶의 비밀이시며, 선교 활동의 원동력이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얼굴’을 항상 새롭게 변모시키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속의 정신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배할 때에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부활 전례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안개 속에 가려진 과거의 사건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언제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도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부활의 영이며 말씀, 성사, 교회의 여러 조직, 이 모든 것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경이로움의 역사이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생겼다가 소멸하기를 반복하였습니까.

그러나 몇몇 지역의 교회들은 사목의 열정을 상실하고, 기도를 우선하지 않으며, 영성의 의미를 잊고, 진실한 교리와 슬기로운 도덕관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세가 효과적인 사목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대두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태만이 단지 ‘세속성’의 결과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전하

차게 쇄신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성령의 뜻과 세속의 안이를 구분하고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강림대축일은 선교의 축제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잠가 놓았던 모든 문을 성령께서 일일이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거리로 이끄셨습니다. 사도들은 세상 곳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숨결로 우리의 ‘내적 교회’를 채우고 변화시키시다. 그리하여 전 세계

의 ‘외적 교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머물고 있는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동반자이신 성모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가장 고귀한 천국의 선물을 전구하실 것입니다.

교황청 내사원장 · 교황청 재단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성령께서는 교회의 용모를 다시금
젊고 신선하며 구김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는 영성의 향기에 또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 성직자 지망생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이 생겨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세속성에 물들어 내적 황폐화에 빠져 버린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젊은이들은 진심으로 교회에 충실하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용모를 신선하고 활기



ACN 한국지부, 대구대교구 신서성당 방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에게 대구는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이 인근의 철곡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관 수도원은 ACN Korea의 중요한 동반자로, 이미 여러 차례 큰 도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ACN 한국지부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ACN은 대구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과 부활 제3주일인 30일, ACN Korea가 대구대교구 신서성당을 방문했습니다. ACN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초대해 주시어 특전미사와 주일미사에 참여하며, 미사 중에 ACN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서본당 주임이신 한명석 신부님께서는 가톨릭 언론에 게재된 ACN의 소식을 접하셨고 한걸음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본당의 교우 여러분께서는 ACN에게 후원금을 전해 주셨으며, ACN의 지원 사업 협력자이신 아프리카 대륙 14개국의 성직자들께서 작성한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문에 함께해주셨습니다. ACN은 신서본당과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은 전 세계 148개국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ACN의 활동을 짧게 알린 후 지난 3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며 만났던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보코하람’(Boko Haram)과 다른 부족들의 공격으로 가정과 재산,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자 지부장은 나이지리아에서 만난 두 소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꼭 전해 주겠다고 한 그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클라우자 지부장을 비롯한 ACN 직원들은 가득찬 봉헌 바구니에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ACN은 하느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두 손 안에 모든 것을 의탁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ACN은 신서성당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학생이라서 많이 기부하지 못하는데 괜찮을까요?”라고 물으며 월 5천 원을 후원하겠다는 신청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렘톤 두 님을 넣은 가난한 과부(마르 12,42 참조)와 같습니다. 그의 작은 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큰 열매가 되어 나이지리아 아이들과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깊은 감동과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신 한명석 주임신부님과 이성웅 신부님 그리고 신서성당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CN, 이라크 니네베 평원에 올리브 나무를 선물하다



올리브 나무를 건네는 오조레스 사무총장

유약한 어린 올리브 나무처럼,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처럼 니네베 평원의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바르텔라(Bartella), 카렘레쉬(Karemlash), 그리고 카라코쉬(Qaraqosh)라고도 알려진 바그데다(Baghdada), 이 세 마을의 그리스도인 가옥 105채를 다시 짓습니다. 가장 먼저 바그데다의 첫 번째 건축 부지에서 공사를 착수합니다.

니네베 평원의 성전은 새로운 희망의 원천입니다. 이곳의 그리스도인 마을들은 '다에시'(IS)에게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2014년 8월, 다에시의 공격으로 인해 약 13만 명의 그리스도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난민들은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쿠르드 자치구로 피난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ACN의 중동 지역 지원 사업 책임자이신 안제이 할렘바(Andrzej Halemba) 신부님과 국제 ACN 사무총장 필립 오조레스(Philipp Ozores)가 니네베 평원을 방문하여 바르텔라, 카렘레쉬, 바그데다의 성당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올리브 나무를 한 그루씩 선물했습니다. 니네베 평원 재건 위원회(NRC)는 **이라크 니네베 평원에서 다에시가 파괴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옥 13,000채 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가톨릭, 칼데아 가톨릭교회에서 각 2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ACN이 지명한 3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바르텔라에서는 시리아 정교회 가정의 가옥 1,451채가 공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75채는 파괴되었으며, 278채가 소실되었고, 나머지 1,098채는 군데군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수와 전력 공급은 최근 재개되었습니다. 카렘레쉬에서 재건이 필요한 가옥은 모두 754채입니다. 그중 89채가 파괴되어 무너졌고, 241채가 소실되었으며, 나머지 424채는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렘레쉬의 식수 공급은 축복식을 갖기 하루 전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바그데다에서는 시리아 가톨릭 신자들의 가옥 6,327채가 재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108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시리아 정교회 신자들의 가옥 400채도 재건이 필요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파괴되어 무너진 가옥은 400채 중에서 7채뿐입니다. 마을 재건의 열망과 이를 이루기 위한 기술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40명의 기술자들이 재건 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며, 지금 당장 작업이 가능한 사람들만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국제 ACN 사무총장 필립 오조레스가 니네베 평원 재건과 올리브 나무 축복식의 의미를 밝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시작점에서 있다는 이 작은 상징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태오 복음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과 ACN 가족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는 니네베 평원이 그곳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두 팔 벌려 안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니네베 평원이 머지않아 다시 모든 이를 위한 삶과 평화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리브 나무 축복식은 텔스쿠프(Telskuf)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칼데아 가톨릭 신자들의 가옥 1,268채가 공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중 1,123채는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아서 빠른 재건의 희망이 가장 확실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500가구는 이미 텔스쿠프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북 여학생들,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다

2014년 4월,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이 치북 마을에서 276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했습니다. 소녀들은 감금, 강제 개종, 인신매매 등의 위협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인들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우리 딸들을 돌려달라'(#BringBackOurGirls)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소녀들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나이지리아 당국이 수감 중인 보코하람 포로들과 소녀들을 맞교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코하람에게 피랍되어 있던 치북의 여학생들 중 82명이 석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풀려나지 못한 소녀들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여학생들이 하루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래된 수도원, 새 삶이 피어나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2티모 1,7-8)

우리는 바오로 성인께서 티모테오 성인께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최우선인 세상에 맞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 가족 간의 일치, 하느님과 모든 영혼들의 일치를 위해 동유럽 국가에서 활동하는 슈맹나프(*Chemin neuf*) 공동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슈맹나프 공동체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2년 6월 24일, 리옹(*Lyon*)에서 설립되어 오늘날 교황청 산하의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98년, 당시 프라하 대교구장이셨던 밀로슬라프 블크(*Miloslav Vlk*) 추기경께서는 프라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체코 투호메리체(*Tuchomerice*)에 예수회를 파견하셨습니다. 이 수도원은 부부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기도와 대화를 통해 혼인생활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카나(*Kana*) 주(週)’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피정과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1년에 7주간 성서학교도 운영합니다. 갈수록 이 활기찬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하느님 없는 공산주의와 영혼 없는 소비주의를 겪으면서 삶의 의미와 그 의지에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신앙을 고백하고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령의 활동이 열리는 투호메리체 수도원



수도원 정원에서 걷는 십자가의 길,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이들

요즘 수도원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까래와 복도를 고치고, 창문을 교체하고, 가스렌지를 수리하였으며, 성전을 새로 꾸미고,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비용이 부족하여 낡은 전선과 식수, 난방기기를 부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힘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묵과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요청에 ACN이 25,000유로(약 3,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희망이 되어주는 복음의 집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리투아니아 우테나(*Utena*)에 있는 ‘하느님의 섭리 수녀원’ 수녀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사십니다. 수녀님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피정을 개최하고, 낙태를 한 여성들을 돌보십니다. 수녀님들의 ‘복음의 집’은 지역에서 빛나는 희망이 되어 줍니다. 여러 의문을 품고 경건한 기도로서 답을 구하려는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수녀님들께서는 수녀원을 증축하기로 하셨습니다. ACN은 결코 침묵하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를 전하는 분들에게 15,000유로(약 1,9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다시 찾아온 기쁨

“새로운 복음 선포는 신자들에게 신앙에 대한 새로운 기쁨과 선교의 필요로움을 전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라트비아 리파야(Liepāja)의 도미니카 수도원은 풍성한 그 자체입니다. 가톨릭 인구가 1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녀님들께서 개최하신 교리 심화 수업과 교회사 강좌에 수많은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또한 190명의 여성들이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활동, 금욕과 희생의 의미를 지닌 금식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바부슈카’(할머니), 즉 노년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며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새롭게 교리를 익혀 후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책이나 소문으로만 공산주의 독재를 접한 자녀와 손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감옥이나 강제노동 수용소,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각오해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영혼과 내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단지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발트 해 연안 지역 교회는 영성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몰려오는 많은 신자들을 모두 받아들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미니카 수도원과 같이 작은 곳에서 교육비, 행사비 등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녀님들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CN은 발트 해 연안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도록 **2,000유로(약 25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리 수업을 받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의 수행 가능한 사목 활동에 사용됩니다.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의 성서모임, 존 신부님을 기다리며

존 신부님과 성모님 그리고 자동차 한 대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Faisalabad) 교구 에우제니오 성당의 존 요셉(John Joseph) 신부님께서는 홀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신부님께서는 반경 50km 이내의 마을 28개에서 243가구를 돌보시며, 적어도 각 마을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미사를 집전하고자 하십니다. 존 신부님은 장애를 가진 이들과 나이 든 분들을 돌보시고, 장례 미사를 거행하며, 성서모임과 교리공부 모임을 운영하시고,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의 대화를 진행하시며, 성모님의 원죄없는 잉태에 대해 알리고, 낙태 반대 운동을 펼치십니다. 또한 교육 기관을 운영하시고, 젊은 교사들을 양성하시며, 수감 중인 죄수들을 방문하십니다. 존 신부님께서는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수행하시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성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성모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십니다.

그런데 존 신부님께서 새로운 자동차 구입을 위해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지금 있는 자동차가 너무 낡은 바람에 계속해서 수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시지만,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ACN은 **11,500유로(약 1,4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루카 5,4)

브라질의 마르 아 덴트루(Mar a Dentro)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부가 되어 아 마존 밀림의 더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 아 덴트루 공동체에는 톱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나아가는 낚은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 기능이 고장나서 정박할 때마다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수리를 맡겨야 하는 애물단지지만, 이 낚은 배는 카라타테우아 오우테이루(Caratateua-Outeiro) 섬의 소외된 이웃에게 가장 빛나는 치유의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보배입니다. 섬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의약품 및 생필품을 전해주는 보트를 ‘섬의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65,000명이 거주하는 오우테이루(Outeiro)에는 다양한 수업과 기초적인 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리 교육과 기도모임이 진행되며 미사도 봉헌됩니다. 오우테이루는 과거 원주민들의 묘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신흥종교가 출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르 아 덴트루 공동체는 이에 맞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민들을 보살피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마르 아 덴트루 공동체는 참으로 엄청난 의지로 수많은 치유의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우테이루까지 이어진 다리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곳을 오가야 합니다. 마르 아 덴트루 공동체는 선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만, 낚은 배 한 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이르셨을 때 어부 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루카 5,5)

ACN은 이 시대의 어부들을 위해 **29,000유로(약 3,6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배를 구입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단과 미신, 무성한 밀림에 맞서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들입니다.



아마존에 ‘섬의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마존 강변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약품, 식료품,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싣고 무사히 강 저편에 가 닿는 것은 매일이 모험입니다.

가톨릭교회, 유일한 심터가 되어 주다

위대한 성인들께도 나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짐마차가 여울물 한가운데서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한숨을 쉬고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이 왜 그렇게 친구가 없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친구를 이렇게 하대하시고 고통을 주시니 말이에요.”

아벨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순간 나약해지셨지만, 세상에는 훨씬 비극적인 일들이 많다는 것을 곧 깨달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2010년 대지진은 아이티를 파괴하였습니다. 가옥, 성당, 다리들이 무너지고 거리 곳곳은 찌꺼기 갈라졌습니다. 애당초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아이티의 상황은 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티 신자들은 삶의 기쁨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자신들의 짐마차를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흙탕으로 변해 버린 비포장길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산악지대로 가는 길. 걸어서는 몇 시간을 가야 합니다.

성당은 아이티 땅을 통틀어 유일하게 희망이 허락되는 자리입니다. 공공 시설이 거의 무너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성당뿐이기 때문입니다. 해발 500m의 이 지역에 종려가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 36,000여 명 중 절반가량은 가톨릭 신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애니미즘적 민간신앙인 부두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흙탕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 이 산악 지대에 닿으면 젊고 열정 넘치는 루드 소베르(Roud Sauvreur) 신부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모 성당의 사제이신 루드 신부님께서는 거의 모든 사목 활동을 홀로 담당하십니다. 성전 아홉 곳을 관할하시고 2,780명이 재학 중인 학교와 지역 보건소를 운영하며, 교리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십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이동 수단은 자전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목 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시내의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루드 신부님께서는 “자동차 한 대는 부지런한 조력자의 오른손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님께서 튼튼한 엔진을 가진 조력자를 곁에 둘 수 있도록 ACN이 29,818유로(약 3,700만 원)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루드 신부님과 신자들은 일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미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의 자동차

시에라리온 마케니(Makeni) 교구 은총의 성모 성당에는 '기적의 차'라 불리는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본당 사제 헨리 마그비티(Henry Magbity) 신부님께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신자들을 방문하고 사목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생명을 구한 바 있습니다. 생사가 위급한 아이들과 만삭의 여성들을 28km 떨어진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기적의 차'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헨리 신부님께서 "이 기적의 차는 저희 모두를 위해, 특히 가장 가난한 가족들의 발이 되어 줍니다. 이렇게 큰 행운과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물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받은 자비와 축복을 저희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님과 본당 신자들은 마음을 모아 ACN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Johannes Freiherr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서 최근 사제를 배출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신부님이십니다. 깊은 신앙으로 거행된 첫 미사에는 진정 기쁨이 넘쳤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가끔 혼자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식민화하여 약탈을 일삼았지만, 또한 그리스도교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퍼진 것입니다. 저는 저주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땅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ACN의 아프리카 지원 사업은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구 공동체들은 이제 아프리카 출신 사제들에게 강복을 받고 있습니다. ACN의 아프리카 캠페인이나 전반적인 활동은 서구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었지만, 사제 부족 현상 및 여러 어려움에 처한 유럽 교회가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교회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ACN은 언제나 항상 후원자 여러분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고통받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없었다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사업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Johannes Heereman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세상을 떠난 사촌을 기억하며

선교 사제로서 브라질에서 30년 동안 사목 활동을 했던 제 사촌이 올해 초 우리 곁을 떠났고, 지금은 하늘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심박 조절기에 의지하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제 사촌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사랑의 메아리」를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그를 기억하며 이 후원금과 인사를 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ACN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상의 어려움으로 허덕일 때 ACN 소식지인 「사랑의 메아리」를 받아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테러의 위험 속에서 활동

하는 수도자들의 얼굴에 띤 미소는 저에게 언제나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분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ACN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CN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베렌프리트 신부님과 그의 부름에 응답하신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내리실 것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더욱 더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호주에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전체를 이룹니다. 신체의 한 부분만 다쳐도 온몸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https://www.instagram.com/acn_korea)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8층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교황청
재단

